

 <b>금융위원회</b>	<b>보도 자료</b>			 <b>금융감독원</b>
	<b>보도</b>	<b>2019.1.25.(금) 조간</b>	<b>배포</b>	2019.1.24.(목)  <b>한국거래소</b>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이 윤 수 (02-2100-2601)	<b>담 당 자</b>	김 준 사무관 (02-2100-2516) 정 훈 사무관 (02-2100-2517)
	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 김 영 철(02-3145-5650)		권 영 발 팀장 (02-3145-5640)
	금감원 특별조사국장 윤 동 인(02-3145-5100)		최 원 우 팀장 (02-3145-5103)
	한국거래소 심리부 조 영 철(02-3774-9140)		이 국 철 팀장 (02-3774-9141)

## **제 목 : 2018년 4/4분기중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**

### **1. 개요**

□ 2018년 4/4분기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·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 심의하여, 부정거래,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·통보 조치하였음

\* 2018년중 증권선물위원회 조치현황 : 미공개정보 이용 32건, 시세 조종 12건, 사기적 부정거래 15건,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

-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,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(로펌, 회계법인, 증권사 등)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집중 조사·처리
- 기업사냥꾼, 자금공급책,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적·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&A한 후 주가 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·제재 노력

## 2. 주요 제재 사례

- ① 내부자(회장 및 실질 사주)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동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 (수사기관 고발, '18.10월 의결)
- ②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여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 하는 한편,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 후 동 자금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·유용(수사기관 고발, '18.10월 의결)
- ③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,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사 주식의 매수를 유인한 후 차명으로 既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(수사기관 고발, '18.9월 의결)

## 3. 향후 계획

- 금년에도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제재·조치하고,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
- 한편,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(매년 1, 4, 7, 10월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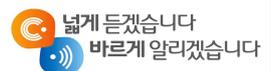
### 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543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
  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'증권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
  - 전화 : 1332 또는 02-3145-5573, 5582, 5549, 5556
  - 팩스 : 02-3145-5580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fsc@korea.kr



1.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사건

- (주)▲▲▲▲▲의 실질 사주이자 회장직에 있는 A○○은 유상증자를 결정할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사정 또한 잘 아는 바,
- (주)▲▲▲▲▲ 임원 B○○으로부터 유상증자 제안 보고를 받고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·지시하며 이 과정에서 악재성 중요정보를 지득하였으며,
- 동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C○○ 및 D○○ 등 지인을 통해 차명\*으로 보유하고 있던 (주)▲▲▲▲▲주식 345만 749주를 매도하여 54억1,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

\* 총 8인의 19개 계좌

< 사건 개요 >



## 2.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부정거래 등을 통해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사건

- A○○, B○○는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△△△(주)를 무자본 인수한 후,
  - 인수주식 전량을 인수직후 매각하였음에도 허위 대량보유 보고를 통해 이를 은폐하는 한편, 해외 유명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회사가 정상적으로 인수되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
  -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,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청약 여부 및 자금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함으로써 일반투자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조달에 성공
- 조달한 자금은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관계사에 출자·대여 되어 다른 상장사 인수 등에 사용되었고
  - 이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편취·유용한 혐의가 있으며
  - 회사는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불투명이 주요 원인이 되어 결국 상장폐지됨

### < 사건 개요 >



### 3. 허위사실 유포 등 위계를 사용한 비상장 주식매도 사건

- 유명 주식카페(회원수 100만여명) 운영자인 A○○은 공시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하여,
  - (주)○○ 주식을 사전에 차명을 통해 대량 취득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함
- (주)○○ 주식은 상장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고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상장가능성이 희박함에도, 동인은 상기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주식강의를 통해,
  - (주)○○ 주식의 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고수익을 얻으려면 “지금 이 때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”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하는 방법으로 매수를 유인한 후,
  -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음

#### < 사건 개요 >

